

## □ 사례발표 □

## 인터넷 신문 현황

송 강 섭<sup>†</sup>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해외인터넷 신문현황  |
| 2. 국내 인터넷신문 현황 | 4. 최근의 인터넷 신문들 |

## 1. 머리말

지금 전세계에서는 미디어혁명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신문 방송 비디오등 기존 미디어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만나 '정보 유토피아'의 신세계를 열고 있다.

손에 집어들면 먹물이 묻어나는 신문의 부수확장파열경쟁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지만 다른쪽에선 컴퓨터 마우스만 누르면 지구촌 곳곳의 뉴스가 24시간 내내 화려한 그래픽, 동영상과 함께 쏟아져 나온다. '보고 듣는 신문이라니' 이것이 신문인지 방송인지 기존 개념으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다.

없는 것이 없어 좋고 공짜라서 더 좋은 인터넷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중의 하나가 인터넷 전자신문이다.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신문이다.

인터넷 전자신문은 속보성과 함께 기존 종이신문이 흉내 내지 못하는 각종 정보와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뉴미디어시대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로 몽드, 요미우리등 전세계의 유력 언론사들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뉴미디어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위해 너도나도 전자신문 개발에 社運을 걸고 있다.

인터넷 열풍이 어느나라 못지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신문이 작년부터 하나 둘 선보이더니 어느덧 대부분의 종합일간지와 방송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터넷 전자신문은 전세계 통틀어 1,000여 개에 이른다. 아직까지는 기존 인쇄신문이 막강한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컴퓨터와 정보통신분야 최첨단기술과 접목된 인터넷신문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현재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으로는 USA투데이, 난도타임스, CNN 인터랙티브,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sup>†</sup> 정회원 : 한국일보 뉴미디어부 기자

타임스, 로이터 뉴미디어, 르 몽드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신문 방송사들이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추진중이다.

## 2. 국내 인터넷신문 현황

인터넷신문의 등장은 국내 언론에도 일대 변화를 몰고왔다.

신문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뉴미디어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을 선보였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인터넷신문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등이 연이어 인터넷 전자신문을 개통, 국내에 전자신문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한 동아일보 이르기까지 10여곳의 신문 방송사들이 온라인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비교

	중앙일보 (JOINS)	디지털 조선일보	한국일보 (코리아링크)
서비스 개시일	1995.3.2	1995.11.15	1996.1.16
특 징	▲언론사중 국내 최초 서 비스 시작 ▲기사 검색 서비스	▲움직이는 주요뉴스 ▲온라인 진 료서비스	▲4대일간지등 정 보량 국내최대 ▲코리아타임스등 영문정보 풍부

국내 인터넷신문들은 역사가 일천한 만큼 아직은 양과 질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신문기사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사 인물 검색조차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전문분야의 정보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신문들은 최근 들어 외국의

유명사이트에서나 볼 수있던 온라인 쇼핑, 온라인 진료라든가 맞춤형뉴스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서비스기술면에서 조만간 급진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국내의 주요 인터넷신문들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 중앙일보(<http://www.joongang.co.kr>) 다른 많은 국내 사이트들과 달리 페이지를 분할(프레임기능 사용) 하지 않고 디자인도 튀는 느낌이 없어 안정감을 준다. 그날의 신문 페이지중 주요면을 사진으로 찍어 화면에 보여주는 스캐너서비스가 특색이다. 기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



▲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8월 1일부터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수정했다. 화면을 5개의 항(포레임) 나누어 원하는 메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꾸몄다. 홈페이지의 움직이는 뉴스등 주요뉴스를 잘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뉴스를 리얼오디오 등의 음성파일로도 보관하고 있어 소리까지 들려준다.

▲ 한국일보(<http://www.korealink.co.kr>)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서울경제신문, 코리아타임스등 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4개의 일간지 뿐만 아니라 세계

권위의 연예패션정보지 엘르, 톱모델, 프리미어 등 국내 최대 정보량을 자랑한다. 이밖에 컴퓨터와 뉴미디어, 비즈니스, 연예, 스포츠등 분야별 전문기사가 잘 정돈되어 있다. 빠른 뉴스서비스도 강점. 코리아타임스등 영문정보가 풍부해 국내 인터넷사이트 중 외국 이용자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신문기사와 함께 제공되는 한겨레21에 실린 시사성있는 기획기사와 칼럼이 돋보인다. 영화관련 정보지 씨네21에는 매주 새롭게 올려지는 영화 비디오 TV관련 최신 소식과 비평을 한눈에 접할 수 있다.

▲ 서울신문(<http://www.seoul.co.kr>) 종합지 서울신문과 스포츠전문지인 스포츠서울외에 퀵, TV가이드등 잡지등 스포츠 연예관련기사가 눈에 띈다. 특히 연예 인명사전 코너에서는 영화배우 MC 가수 등 직종별로 분류된 연예인들의 약력을 사진과 함께 찾아볼 수 있다.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분야별 뉴스뿐만 아니라 매거진X 감상택만평 날씨등의 메뉴가 알차다. 홈페이지를 2개로 나누어(프레임) 왼쪽 화면에 경향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각 메뉴들을 스크롤형식으로 한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일간

지외에 경향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레이디경향 TV타임스 등을 함께 서비스해 연예관련 정보가 풍부하며 테트리스등 게임도 즐길 수 있다.

▲ 동아일보(<http://www.dongailbo.co.kr>)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신동아, 뉴스플러스, 과학동아, 레츠등 다수의 잡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코너에 가면 바둑, 새책, 복권 등 생활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일본 아사히,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주요기사를 간추려 놓았다.

이밖에도 KBS, MBC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으며 SBS, 문화일보, 국민일보등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3. 해외 인터넷신문 현황

지금 전세계 유력 신문사들은 예의없이 기존의 풍부한 정보를 무기로 올드미디어(Old Media)에서 뉴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 인터넷신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에서는 CNN, 워싱턴타임스, 타임등 기존 언론사뿐 아니라 아메리카온라인, 프로디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등 컴퓨터업체들까지 인터넷신문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찌감치 인터넷에 눈돌린 USA투데이와 난도 타임스, 증권뉴스 속보서비스에 나선 파이낸셜 타임스, 독자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잉크(Digital Ink)'를 서비스하고 있는 워싱턴 타임스, 대화형(Interactive) 뉴스서비스 개발과 인터넷신문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현재 명성을 날리고 있는 세계 권위자들이지만 다가오는 전자신문시대를 미리 준비하기 지금부터 뛰고있는 것이다.

전세계 독자들이 독자들이 풍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개인 취향에 맞는 주문

형 뉴스를 개발하고, 온라인쇼핑 등 각종 대화형서비스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등 일부 신문들은 이미 주식투자정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료화서비스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 유럽의 신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전세계 언론사들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의 대표적 인터넷신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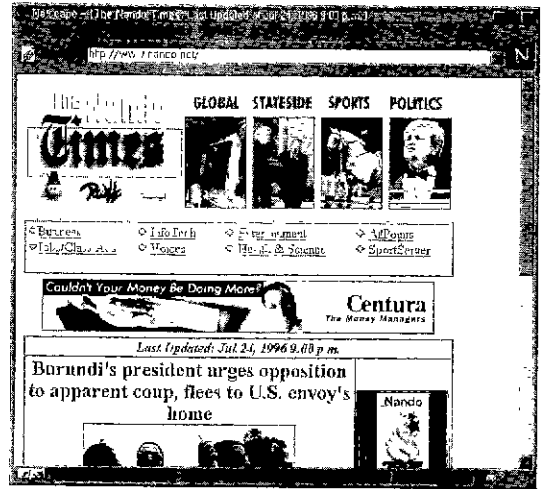
▲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 스포츠 경제 날씨 복권등 각 분야별 뉴스는 물론 선거 올림픽등 과거기사까지 검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스코어' 메뉴버튼을 누르면 2분마다 새로 올라오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뉴욕타임스(<http://www.nytimes.com>) '미국 최고 권위 신문'의 명성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가 마치 진짜 신문의 1면과 같이 디자인되어 있어 편안한 느낌을 준다.

컴퓨터 정보통신기사등 전문분야 기사도 잘 정리해 놓았고 그날의 신문기사를 요약해 독자들에게 보내주는 '타임스 팩스'서비스도 제공한다.

▲ CNN 인터랙티브(<http://www.cnn.com>) 뉴스전문 케이블방송의 대명사인 미국의 CNN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미국 소식은 물론 컴퓨터, 오락등 주요 기사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 난도 타임스(<http://www.nando.net>) 뉴스, 연예, 오락, 레저등 다양한 읽을거리 볼거리를 선사해주는 인터넷의 명소이다. 기사를 읽다가 지루해지면 퍼즐, 우주전쟁등 온라인게임도 즐길 수 있어 매력적이다.



▲ 월스트리트 저널(<http://wsj.com>) 경제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꼭 들러볼 만하다. 기업체의 재무제표나 증권투자정보등을 다양한 그래프를 곁들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유료화를 추진중이다.

▲ 로이터 뉴미디어 (<http://www.yahoo.com/headlines/news/summary.html>) 로이터통신이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검색사이트인 '야후(yahoo)'를 통해 제공하는 뉴스속보 서비스이다. 지구촌 곳곳의 주요뉴스를 가장 빨리 전해주는 곳의 하나이다. 또한 일주일 전의 기사까지 보관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 르 몽드(<http://www.lemonde.fr>) 프랑스 최고의 권위지에 실린 정치, 경제, 국제 등의 뉴스를 통해 미국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다. 신문이 외에 LE MONDE DIPLOMATIQUE등 정기간행물도 볼 수 있으며 원하면 구독신청도 가능하다.

▲ 요미우리(<http://www.yomiuri.co.jp>) 일본인 뿐만 아니라 전세계 독자들을 위해 영문판도 제공한다. 그날의 주요뉴스 사설 연예 소식은 물론 일본 프로야구등 스포츠관련 정보가 풍부하다.

이밖에 미국의 타임(<http://www.pathfinder.com/time>),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http://www.sjmercury.com>), 영국의 권위지 더 타임스(<http://www.the-times.co.uk>), 텔레그래프 (<http://www.telegraph.co.uk>)등도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으로 꼽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아사히, 마이니치와 중국의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등이 불만하다. 인터넷에서 중국이나 일본사이트에 접속하면 글자가 깨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유니온웨이'나 '트윈브릿지' 같은 특수문자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

#### 4. 최근의 인터넷신문들

컴맹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하기 쉬운 월드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인터넷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한 신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은 하룻밤 자고나면 달라지는 세상이 되었다.

아직도 폭신한 소파에 앉아서 종이신문을 읽는 것이 PC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읽는 것보다 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첨단 컴퓨터통신기술이 이러한 벽을 하나 하나 허물어 주고 있다.

인터넷신문 최신 흐름중의 하나가 주문형 뉴스서비스 개발이다. '인터넷 정보의 90%는 쓰레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보홍수의 시대에 인터넷독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신속하게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최대 컴퓨터통신업체인 아메리칸온라인(AOL)과 제휴해 팩스 온 디맨드(FOD)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원하는 분야의 뉴스를 요청하면 통신망을 이용해 신청한 뉴스를 보내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로 팩스대신 전자우편 형

태로 뉴스를 보내주는 전자메일 신문서비스도 등장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특히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신문들은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 신문이나 방송이 뉴스를 가공해 독자,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반면 인터넷신문은 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뉴스(Customized News)를 제공해 준다. 미국 IBM사에서 제공하는 인포세이지(infoSage)와 크레온(CRAYON)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일보사 인터넷신문 코리아링크(Korealink)가 지난5월부터 국내 언론사중 처음으로 맞춤형뉴스 서비스를 시작해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 포인트캐스트사 (<http://www.pointcas.com>)는 세계 유력 신문 통신사들의 뉴스를 사용자의 PC로 자동 배달해 주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난 2월부터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을 잠시 멈출 때 등장하는 스크린세이버(화면보호기)를 이용한 포인트캐스트 네트워크 서비스는 로이터통신, 버라이어티지, LA타임스 등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플라 볼 수 있는 주문형 뉴스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위해 수많은 인터넷사이트들을 헤맬필요가 없다.

‘종이신문은 이제 사라지는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미디어연구소의 네그로폰테 소장은 자신의 저서 'Being Digital'에서 온라인신문의 출현으로 기존 인쇄신문은 이제 낡은 유물로 전락할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기존 인쇄신문은 쉽사리 인터넷신문에 그 자리를 내줄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의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을 아직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전자신문시대는 오고 있다. 디지털혁명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송강섭  
한국일보 뉴미디어부 기자

**'96 추계학술 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1996. 10. 11 (금)~12 (토)
- 장 소 : 광운대학교
- 논문 접수마감 : 1996. 9. 6 (금)
- 문 의 : TEL (02)593-2894, FAX (02)593-2896